

협회소식

제10회 전국양돈인대회 11월 12일 개최

제10회 전국양돈인대회가 오는 11월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다.

전국 양돈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자조정신을 함양하고 양돈인의 지위향상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양돈인대회는 “자조정신함양 결의대회”라는 명칭 하에 제1부에서는 양돈대상과 모범양돈농가상, 양돈유관기관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되며 제2부에서는 농림수산부 김동태 축산국장과 성균관대학교 장을병 총장의 기념특강이 있을 예정이며 오후 1시부터는 회원부인들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강습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양돈인대회는 농림수산부가 주최하는 '93 제2 녹색시대 행사기간중에 개최되어 전국 양돈인들의 화합분위기가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덴마크 양돈기술 세미나 11월 2일 개최

본회와 덴마크 농수산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덴마크 양돈기술 세미나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II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덴마크의 양돈국제경쟁력 비교”라는 제목으로 개최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축산선진국인 덴마크의 양돈현황 전반에 걸친 소개와 우리나라와의 비교도 있게 된다.

본회 돈군 건강진단 협조 요청

본회는 지난 9월 22일 가축위생연구소에 돈군 건강진단 협조 요청을 했다.

본회가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은 전국에서 출품된 종돈들이 본회 검정소에 모였다가 다시 전국 각지로 분양되는 과정에서 질병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올해 위축성 비염, 홍막폐렴, 유행성 폐렴, 돈 콜레라, 오제스키, 전염성 위장염 등의 질병에 대한 혈청검사와 내년에는 PRRS와 돼지 음을 추가시켜 도체검사 및 혈청검사, 임상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또한 내년부터 출품농장의 방역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본회, 안수환씨 제1검정소 종돈능력 검정위원으로 위촉

본회는 지난 9월 24일 가축위생연구소 안수환 병독과장을 제1검정소 종돈능력 검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 7월 1일 농림수산부의 인사이동시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으로 있던 이재진 씨가 검정화학과장으로 전보 발령되고 새로운 병독과장으로 안수환 씨가 재직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종돈능력 검정위원으로 위촉된 안수환

과장은 '68년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시작으로 이전에도 가위연 병독과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바이러스학회 평의원, 대한면역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장흥지부 현판식 개최



본회의 87번째 지부로 설립된 장흥지부(지부장 : 박동규)가 현판식을 가졌다.

장흥지부는 지난 10월 15일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89-1에 지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회 노영한 전무와 전재명 전남도협회의회장을 비롯한 전남지역 지부장 및 회원들과 허규완 전남도 축산과장, 정만호 전남 가축위생시험소장, 위성찬 장흥군 축협조합장 등 축산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회 87번째 지부로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본회 노영한 전무는 전동용 회장을 대신한 기념사에서 “양돈산업이 처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흥지부의 설립을 축하했다.

한편 본회 전동용 회장은 지부설립에 공이 큰 박동규 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영암지부 영농조합법인 설립

영암지부(지부장 : 김일중)가 지난 4월 27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동지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7명의 조합원이 총 5,600좌 5,600만원을 출자하여 동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설립된 영암양돈영농조합은 앞으로 경영안정 사업, 양돈협업 및 공동작업,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농축기계 및 시설 대여, 농축산물 가공 및 판매, 사료생산 및 축분 공동처리, 종돈생산 및 분양, 양돈농가 홍보 계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동법인의 대표이사에는 본회 영암지부장인 김일중씨가 선출되었으며 사무실은 영암지부와 공동 사용키로 했다.

고창지부 제2축산물 직판장 개설

고창지부(지부장 : 오균호)는 지난 9월 23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 2동 동사무소 앞에 제2 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다.

오균호 지부장을 비롯한 22명의 회원이 2,5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해 설립된 동 직판장은 15평 규모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상등육을 부위별로 판매하고 있다.

신태식 이사, 부산·경남 양돈조합장에 피선



신태식 이사

본회 신태식 이사가 제5대 부산·경남 양돈조합장에 당선됐다.

지난 10월 13일 부산·경남 양돈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된 제5대 조합장 선거에서 신태식 이사가 374 : 230의

압도적 표차로 함께 출마한 조종택 후보를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된 것이다.

신 이사는 앞으로 4년간 조합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육가공공장 본격 가동과 내년 2월 완공예정인 양돈전문 사료공장 완공, 축산물 공판장 부지 선정 등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지부장에 오균호씨 선출



오균호 지부장

고창지부는 지난 8월 5일 오균호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선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오균호

▲부지부장 : 김홍술, 우명석

▲총 무 : 장명진

▲운영위원 : 김진택, 안재호, 박종식

▲감 사 : 송기수, 민양례

대전지부 사무실 이전

대전지부는 최근 사무실을 아래 주소로 이전했다.

▲주소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53-4, 센트리아오피스텔 1109호

▲전화 : (042)522~7743(FAX 겸용)

업 회 단 신

파주지부 여직원 채용



이미애 양

파주지부(지부장 : 윤병역)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최근 이미애 양(20세)을 새로 채용했다.

이 양은 문산여자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옥천지부 여직원 채용



박미영 양

옥천지부(지부장 : 조관현)는 최근 지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박은미 양(18세)을 새로 채용했다.

박 양은 금오여자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다.

대전지부 여직원 채용

대전지부는 최근 업무 활성화를 위해 전소라 양(21세)을 새로 채용했다.

전 양은 전북 남원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장흥지부 여직원 채용

지난 9월 21일 설립된 장흥지부가 업무 활성화를 위해 김선옥 양을 채용했다. 